

미국·중남미 국가 에너지 협력 활동 변화

해외정보분석실 박진희(jhpark15225@keei.re.kr)

- ▶ 중남미 국가와 미국은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상호의존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 하지만, 양자 간 관계는 미 오바마 정부의 ‘탈중남미 정책’, 미국의 세일혁명, 중국의 對중남미 영향력 강화 등으로 인해 악화되었음.
- ▶ 하지만, 최근 계속된 저유가 상황, 중국의 경제 성장 저하로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재고하게 됨.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적 환경 변화 및 에너지 개혁 등으로 투자 진출이 용이하게 되었고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게 됨.
- ▶ 멕시코는 에너지 개혁을 통해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음. 최근 저렴한 미국산 가스 수입이 증대되면서 가스 인프라 구축 사업에 미국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멕시코는 자국 내 가스 수요 충족을 위해 미국산 가스 수입을 2019년까지 9Bcf/d까지 증대시킬 계획임.
- ▶ 또한, 최근 원유스왑계약 체결과 전력 부문 개방으로 전반적인 에너지 부문에서 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 아르헨티나는 최근 좌파정권에서 우파정권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서 시장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오바마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에너지, 통상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재생에너지원 발전에 지원하기로 함.
- ▶ 미국은 콜롬비아의 평화활동 지원을 약속하고 에너지 개발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쿠바와 통상금지 조치를 해제해 기술 부족으로 인해 개발이 부진했던 쿠바의 북부 해상 지대 개발에 미국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
- ▶ 또한, 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카리브해 국가들의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원 개발에 지원하기로 함. 미국은 ‘미국-카리브해 국가들 간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이니셔티브(US-Caribbean Energy Initiative)’를 발족하고 에너지 회담을 개최해 재생에너지원 개발 지원 계획을 발표함.

1. 중남미 지역 지정학적 변화요인

■ 정치·경제 환경 변화

- 중남미 국가와 미국은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상호의존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 그러나 미국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미국정부가 주도한 ‘탈중남미(disengagement) 정책’ 등에 의하여 미국의 對중남미 지역협력 이니셔티브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중남미·미국의 에너지 협력 관계도 변화를 경험하였음.
- 한편, 중국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경제 및 정치 관계 강화를 2000년대부터 확대하면서 중남미와 미국 관계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중국은 자국 내 원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남미 지역을 통해 에너지원을 확보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탐사, 생산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중남미 국

“최근 오바마 정부의 ‘탈중남미 정책’과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미-중남미 관계 악화”

영석유기업들에 원유상환차관을 제공했음.

※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등의 중남미 국가들에 원유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

- 중남미 국가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으로부터 약 1,19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았으며, 이 중 에너지 부문의 차관 규모는 329억 달러(전체 28%)에 달하였음.
- 특히, 중국의 對중남미 지역 차관 규모는 2013년에 129억 달러에서 2014년 221억 달러로 약 70% 급증한 바 있음.

〈 중국의 對중남미 총 차관 규모 (2005~2014년) 〉

(단위 : 억 달러, %)

부문별	차관 규모	비중
인프라	499	42.0%
에너지	329	27.7%
광업	58	4.9%
기타	301	25.4%
합계	1,187	100.0%

주 : 비중은 각 표의 합계 대비 비중

자료 : Inter-American Dialogue¹⁾

〈 중국의 對중남미 에너지 차관 규모 (2005~2014년) 〉

(단위 : 억 달러, %)

국가별	차관 규모	비중
브라질	122	37.1%
에콰도르	84	25.5%
베네수엘라	60	18.2%
아르헨티나	49	14.9%
멕시코	10	3.0%
온두라스	3	0.9%
볼리비아	0.6	0.2%
합계	329	100.0%

“중남미 국가들의 국내 정치역학 변화(시장친화성향으로 전환)에 따라 對미국 경제협력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전망”

-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의 국내 정치역학 변화에 따라 對미국 경제협력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즉, 중남미 국가들 중 기존의 좌파정권에서 우파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된 국가들은 기존에 미국에 적대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과 반대로 우호적인 정책노선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아르헨티나는 대선(2015.11.22)을 통해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교체되었음.
 - 중도 보수 야당인 Mauricio Macri 후보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10여 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은 우파정당은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국내외 자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됨²⁾.
 - Macri 당선자는 친기업주의자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과도한 국가 보조금을 조절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신임 대통령은 전임 정권이 추진하였던 폐쇄정책을 철폐할 경우, 칠레와 페루 같은 인접국들과의 마찰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력관계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1) Natural Gas Daily, “China sees profit in Latin America”, 2015.9.7

2) Reuters, “Argentina’s Macri ousts leftist Peronists from power”, 2015.11.23

- 베네수엘라에서는 총선(2015.12.6)에서 야권인 민주연합회의(MUD)가 전체 의석 수 167석 중 109석을 차지했으며 베네수엘라 Nicolas Maduro 대통령의 집권당인 통합사회주의당(PSUV)은 55석, 원주민은 3석을 차지했음.
 - 17년 만에 다시 정권을 탈환한 MUD는 높은 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 해결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신임정권은 전임 좌파정권이 미국 및 베네수엘라와 빚어왔던 외교적 갈등관계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편,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들 국가가 세계 자본투자의 ‘sweet spot’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멕시코는 ‘석유부문 및 발전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허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개혁법을 2014년부터 시행해 외국 기업들의 탄화수소 부문 참여를 허용하였음.

“저유가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성장 위축, 재정난 심화”

■ 중남미 국가의 경제난

- 베네수엘라는 2014년부터 시작된 저유가로 인해 경제성장 위축이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음. 이는 베네수엘라가 수출 수익의 95%를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 베네수엘라의 대외채무(External debt)는 약 1,850억 달러로 아르헨티나의 2001년 디폴트 당시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음.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2015년 경제가 -5.7% 성장을 기록하였고, 인플레이션은 급등(180.9%)했다고 발표함(2016.2.18). 상품가격의 경우, 식료품은 315%, 의류는 146%, 의료비는 110.6%, 교통비는 129.8% 각각 상승했음.
- 2015년 브라질의 GDP는 -3.8%, 인플레이션은 11%에 달하였으며, 2016년에는 물가상승률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브라질의 대외채무(External debt)는 약 3,500억 달러로 2015년 GDP의 64% 수준에 달하였으며, 2016~2018년까지 8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Moody’s).

2. 세계 에너지시장 변화의 중남미 국가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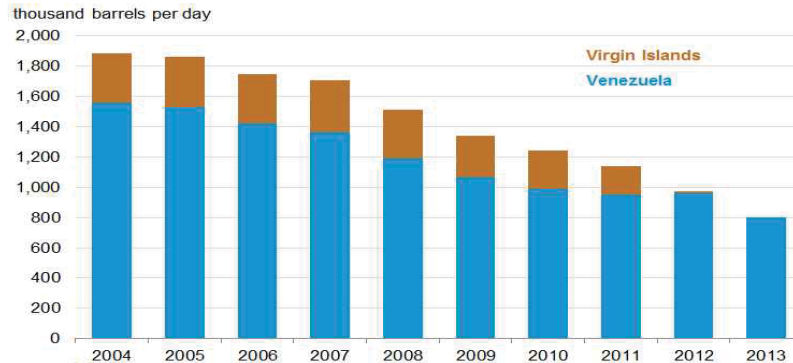
■ 미국의 세일혁명 및 중국 경제성장 둔화 영향

- 전통적으로 미국은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국가 등의 안정적인 석유 수출 시장이었으나 미국의 세일혁명 이후 비전통자원 생산이 급증하면서 수출이 감소하게 되었음.

“미국의 세일혁명으로 중남미의 對미국 원유 수출 감소”

-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對미국 원유 수출은 급격하게 감소추세로 전환하게 되었음.

〈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및 액체연료 연도별 수입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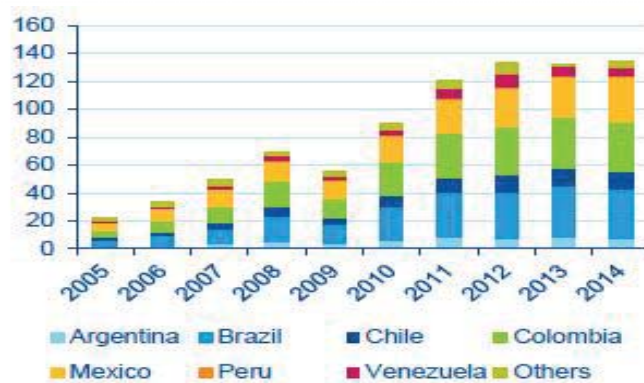
자료: EIA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의 對중국 원유 수출이 감축되었고, 통상 규모도 감소하였음”

- 중남미 국가들은 저유가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한편,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對중국 원유 수출 감축 영향에 직면하고 있음.
 -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는 중국으로 원유·석유제품·석탄·구리 및 기타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으며, 무역규모는 중국 내 철광석과 대두 등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증대되었고, 특히, 중남미 국가들의 對중국 원유 수출 비중은 2000년 50%에서 2014년 72%까지 증가하였음.
 - 그러나 최근 저유가 상황 지속, 중국의 통화가치 평가절하, 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對중국 수출이 타격을 입고 있음.
 -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는 중국의 상품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중남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와 구리, 대두 등 원자재의 수입량 감소를 유발하고 있음.
 - 중남미 국가·중국 간 통상 규모는 2013년 2,740억 달러에서 2014년 2,690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음.

〈 중남미 국가들의 對중국 수출 현황 〉

(단위 : 10억 달러)



자료 : BBVA Research

3. 중남미 국가별 對미국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전망

■ 멕시코

○ 에너지 협력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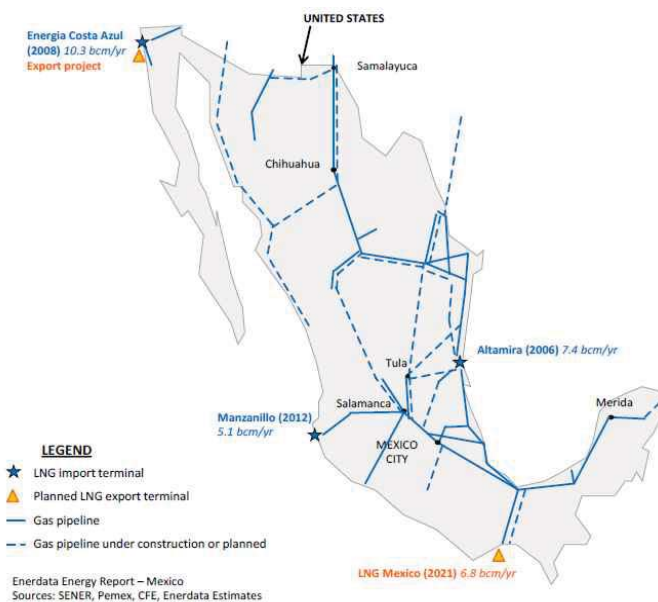
-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 부문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와의 투자 협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또한, 미국기업들은 멕시코의 에너지 개혁으로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자 멕시코로 가스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시장 진출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멕시코는 에너지 인프라 부족 해결을 위해 미국·캐나다와 협력 확대 도모”

○ 에너지 협력 활동

- 멕시코의 천연가스 소비 증가와 가스 수송망 확충으로 미국産 가스 수입이 증가하여왔음.
- 멕시코 2014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5.6Bcf/d 수준인 반면, 소비는 8.3Bcf/d 달하여 수입수요가 발생하였음.
- 천연가스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수입량은 2013년 18.6Bcm(약 1.8Bcf/d)에서 2014년 20.5Bcm(약 2.0Bcf/d)로 증가했음(BP통계).
- 멕시코의 천연가스 수입은 201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와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미국産 천연가스를 도입하여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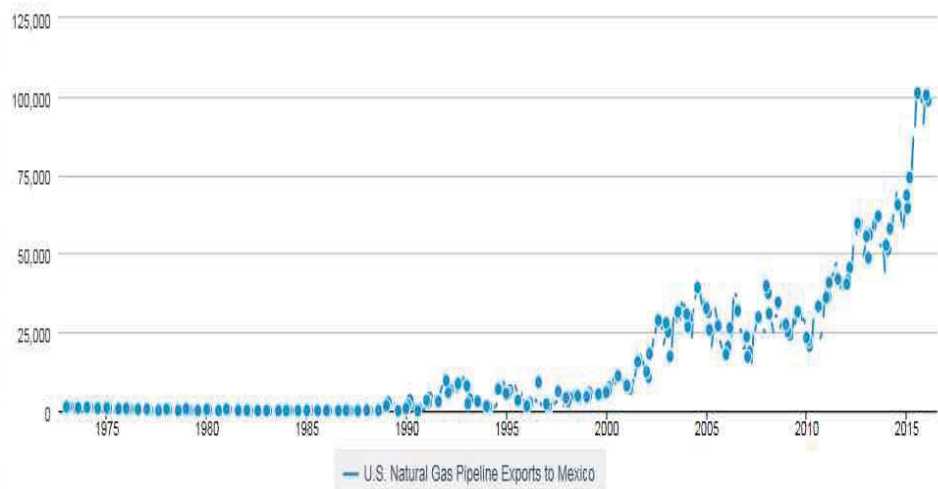
〈 멕시코 파이프라인 수송망 〉



자료 : Enerdata(Mexico 2015)

〈 멕시코-미국 간 가스 교역량(1975~2015년) 〉

(단위 : mcf)



자료 : EIA

“멕시코의 에너지 개혁법 시행으로 미국산 가스 수입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에 미국 민간 자본 투자 확대”

- 멕시코의 에너지개혁법 시행으로 미국산 셰일가스를 수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건설에 미국 민간자본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에너지개혁법은 ‘석유부문 및 발전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2013년 12월 초 멕시코 상·하원을 통과하였으며, Pena Nieto 대통령은 동년 12월 20일 이를 승인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4-4호(2014.2.7일자) p.46 참조).

- 멕시코 통신교통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Transportation of the United Mexican States)와 미 텍사스주 교통부(Tex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TxDOT)는 향후 국경 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음(2015.9.8).

- 2016년 1월 기준 14개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투자비 총 약 74억 달러)가 진행 또는 계획 중에 있음.

- Energy Transfer Partners LP는 멕시코 북부와 텍사스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약 14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2016.1)하였음.
- Sempra Energy의 자회사인 Ienova는 Nuevo Leon과 Tamaulipas 간 파이프라인 건설에 투자(약 13억 달러)하기로 결정하였음.
- 미국 투자금융기업 BlackRock와 First Reserve는 Pemex와 ‘Los Ramones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지분 투자(45%, 9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하였음.

“멕시코는 미국산 가스 수입량을 2019년까지 9Bcf/d로 증대시킬 계획”

○ 에너지 협력 활동 강화 계획 및 전망

- 멕시코는 천연가스 도입 장기계획(2015~2019년 5개년 계획, 2015.10.14)에 근거하여, 파이프라인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2019년까지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을 9Bcf/d까지 확대할 계획임.

- 특히, 원유의 경우 미국 상무부가 멕시코산 중질원유와 미국 텍사스산 경질원

- 유 간 스왑을 승인(2015.8.14)함에 따라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 특히, 멕시코 정유기업들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멕시코 내에는 총 6개 정제시설이 있는데, 이들 중 42%는 중질원유를 처리하기에 적합하며, 3개 정제시설은 중질원유를 처리할 수 없음. 특히, 미국과의 국경지역에 위치한 정제시설들은 경질원유를 처리하기에 적합함.
 - 2014년 총 120만b/d 원유가 정제되었는데, 이 중 65.8만b/d가 경질원유인 Isthmus, 49.7만b/d가 중질원유인 Maya였음.
 -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의 원유스왑으로 경질원유 정제량을 증대시켜 자국 내 경질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전력의 경우, 멕시코 에너지 개혁 중 하나로 전력 도매시장이 출범되면서 외국 기업의 참여가 허용될 전망. 이에 따라 미국 내 전력 가격 하락으로 신규시장을 모색하고 있는 미국 전력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전력 도매시장(Mercado Eléctrico Mayorista): Cenace가 운영하며 제3자가 Cenace와의 계약을 통해 발전·송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청정에너지 인증서를 포함하여 국가 전력시스템(Sistema Eléctrico Nacional) 운영에 필요한 상품 등에 대한 매매 거래를 시행할 수 있음(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 참조).
 - ※ Cenace는 국가전력시스템 및 전력 시장 운영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임.
 - Sempra社 등 미국의 주요 전력기업들은 멕시코의 전력 수요가 증가추세이고 전력 단가가 높은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고자 함.
 - 멕시코의 2015년 MWh당 비피크 가격(non-peak price)은 미 캘리포니아 남부 평균 30.55달러, 휴스턴 평균 24.78달러보다 높은 55~65달러 사이였음.

“멕시코가 전력 도매시장을 출범시키면서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전력 단가가 높은 멕시코 전력시장에 진출하고자 함”

■ 아르헨티나

○ 에너지부문 협력 환경 조성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를 방문해(2016.3.23) Macri 대통령과 외교 관계와 통상, 에너지 부문 협력 방안을 협의함. Macri 대통령은 좌파 정권 동안 폐쇄정책으로 발생된 인접국들과의 마찰을 해소하고 미국과 유럽과의 협력관계를 개선을 도모
-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원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 증진, 탄소배출 감축 등에 미·아르헨티나가 공조하기로 합의
-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 사용에 합의하고 원자력 연구·개발·안전 부문에서 협력 강화
- 아르헨티나가 태양에너지·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원 비중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 약속

“최근 아르헨티나의 정권 교체로 미국 등 외국자본의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미국과 아르헨티나 간 통상 규모가 연간 200억 달러를 상회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민간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의향을 개선
- Mauricio Macri 대통령은 에너지 부문의 과다한 국가 보조금을 삭감하고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
-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자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2001년 발행된 국가부채 상환 계획을 수립·이행함으로써 15년 만에 국제 채권 시장에 복귀함.
- 또한, 정부는 약 1,1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행할 계획

○ 에너지 협력 현황 및 계획

- 아르헨티나 Christina Fernandez 前 대통령은 좌파 정권으로 보호무역체제를 추구해 왔으며 미국보다 러시아 및 중국과의 교류를 선호해왔지만, 미국 Dow Chemical社 및 Chevron社 등은 아르헨티나 대규모 세일지대인 Vaca Muerta에서 시추·개발 활동을 수행하여 왔음.
- Dow Argentina와 아르헨티나 국영석유기업 YPF는 19개 유정을 해당 지대에서 시추했으며 2016년도에 추가로 30개 유정을 시추할 계획임.
- Chevron은 세일지대에서 ‘대규모 유정(super well)’을 발견(2015.10)한 것에 이어 2015년 말까지 총 35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2030년까지 투자 규모를 160억 달러로 증대시킬 계획
- ExxonMobil 또한 아르헨티나에서 5개 유정을 시추했으며, 향후 약 1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 콜롬비아

○ 미국의 對콜롬비아 경제지원 활동

- 콜롬비아는 무장혁명군(FARC)과 좌익 게릴라 반군들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으로 에너지 부문 투자에 제약을 받아왔음.
- 2014년 한 해 동안 반군세력의 송유관 공격으로 Caño Limón-Coveñas 송유관은 93차례 걸쳐 가동이 중단됨.
- 미국은 콜롬비아에 1999년 이래 2008년까지 연간 6~7억 달러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음.
- 미국은 콜롬비아의 반군세력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에 향후 5년간 약 6억 달러 지원을 약속함(2015.4.29).

○ 미·콜롬비아 양자 에너지 협력 활동

- 양국은 콜롬비아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 회담(2015.4.2)에서 에너지, 안보, 환경

“미국은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콜롬비아에 군사·경제 원조”

“미국-콜롬비아 정부 간 제5차 고위급회담을 통해 에너지, 안보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보호, 기후변화, 인권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 콜롬비아와 미국은 2010년부터 양자 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오고 있음.
- 회담에서 미국은 콜롬비아의 재생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약 1,85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함.
- 미국은 비전통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 및 에너지 거버넌스 등과 관련한 콜롬비아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함.
- ※ 콜롬비아 정부는 세일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콜롬비아에서 현재 수압파쇄공법이 금지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일부 비전통 유전 시추가 시도되기는 했으나, 대부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인사이트 제14-40호(2014.11.7 일자) p.33 참조).
- ※ 콜롬비아 세일가스의 기술적 가채매장량은 약 55Tcf, 세일오일은 약 68억 배럴로 추정

■ 쿠바

○ 에너지자원 개발 협력 및 난관

- 쿠바는 자국 내 원유 탐사 활동을 주로 육상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Rosneft와 중국 CNPC가 2014년에 쿠바 정부와 유전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원유개발 활동을 전개하여 왔음.
- 쿠바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124백만 배럴 규모(2015.1월 기준)이며, 2014년 원유 생산량은 49,000b/d, 소비는 171,000b/d, 수입은 주로 베네수엘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
- 쿠바의 북부 해상 심해 지대는 상당한 물량의 원유매장량이 부존하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여러 외국 기업들이 투자했으나, 지형적 및 기술적 요인으로 심해 탐사 개발은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음.
- 또한, 북부 해상 심해지대의 원유·가스 탐사활동은 미국의 통상금지조치(trade embargo)와 저유가 상황으로 본격화되지 못하였음.

○ 미국, 쿠바의 에너지협력 새로운 파트너로 등장

- 미국은 1960년 10월 첫 통상금지 조치 이후 54년여 만에 쿠바와 국교정상화를 공식 선언하고(2014.12.17), 미국인 방문 확대, 송금한도 상향, 교역과 금융거래 원활화 등의 제재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쿠바와 미국은 안전한 원유 시추 활동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멕시코만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원유 시추작업과 관련한 환경, 과학, 기술 등의 사안들을 본격 논의하게 되었음(2015.10.22).
- 이번 국교 정상화로 쿠바의 원유 시추·탐사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미국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쿠바의 원유생산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미-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후 쿠바의 북부 해상 심해 지대 개발에 미국과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카리브해 국가

○ US-Caribbean Energy Initiative 발표(2014.6.19)

- 미국은 ‘미국-카리브해 국가들 간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이니셔티브(US-Caribbean Energy Initiative)에 기초하여 에너지부문 개혁을 추진하는 카리브해 국가에 대해 전략적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 카리브해 국가들의 에너지 분야 재정 지원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카리브해 에너지 안보정상회담(Caribbean Energy Security Summit)’이 미 워싱턴 D.C에서 Joe Biden 부통령의 주재로 열렸음(2015.1.26).
-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를 통해 자메이카 34MW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1차로 9천만 달러 지원 계획을 발표함.
 - ※ OPIC은 개도국에 대한 민간자본과 기술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미 정부기관임. OPIC은 현재 자메이카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포함 카리브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2억5,6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의 카리브해 국가 정상외교

- 오바마 대통령은 자메이카를 방문(2015.4.9)해 카리브해 국가 지도자들과 정상 회담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분야 투자 및 협력 성명서를 발표하고 에너지 안보 등을 논의함.
-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에서 카리브해 국가들의 재생에너지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2천만 달러 투자계획과 에너지 안보 전담팀(Energy Security Task Force)을 구성하여 카리브해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활용 증진에 노력할 것임을 발표함.
-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는 자메이카 에너지 분야에 천만 달러 투자계획, 미국 무역개발처(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청정에너지 분야에 지원 계획을 발표함.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AEI, *Time for US Leadership in the Americas*, 2016.1

Enerdata, *Mexico Energy Report*, 2015.11

BBVA Research, *Measuring Latin America's export dependency on China*, 2015.8

IDB, *China, Latin America and the United States: A Troubled Energy Triangle*, 2014.4

Reuters, “Argentina’s Macri ousts leftist Peronists from power”, 2015.11.23

“미국은 카리브해 국가들의 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지원하기로 결정”

USAID, “Clean Energy Finance Facility for the Caribbean and Central America”, 2015.10.19.

Natural Gas Daily, “China sees profit in Latin America”, 2015.9.7

Latin America Goes Global, “Determining and gaining U.S. influence in Latin America”, 2015.5.19

Devex, “Partnership aims to provide sustainable energy for all in Latin America”, 2015.2.24

Financial Times, “Stepping on the gas: Mexico gets new pipeline”, 2014.12.3

ITA, “Soaring Energy Demand Means Opportunities for U.S. Companies in Latin America”, 2014.9.24.

EIA 홈페이지, www.eia.gov

백악관 홈페이지, www.whitehouse.gov